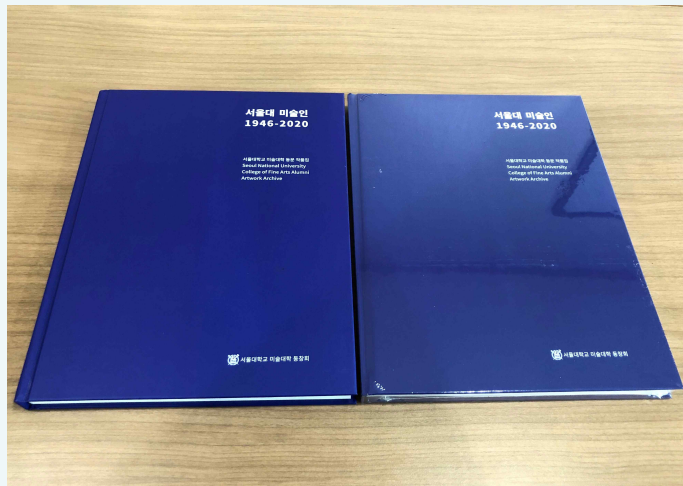


1 본회소식

<서울대 미술인> 동문작품집 발간



<서울대 미술인> 1946-2020 동문 작품집이 12월 1일 출간되었다. 천 명에 달하는 동문들의 인명록에 가까운 작품집에는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약력이 소개되었다. 신청 동문 외 작고동문과 원로동문 등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활동하고 있는 동문 작가들을 웹이나 참고문헌들을 검색하거나 자료조사를 통해 수록했기에 근간에 나온 서울대 미대 출신 작가 작품집으로는 최대 분량이다. <Art on the line> 온라인 동문전 신청 회원은 한 부 증정 드리고 그 외 분들은 구입하시면 된다. 작품집은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본회 주최 <서울미술 나눔> 자선 전시에서 우선 배포되었고 이후 구입을 원하시는 동문은 미리 연락주시고 본회 선릉 오피스로 오시면 증정과 구입이 가능하다.

■ 문자: 010-9469-8065 (선릉 오피스) / snuart8065@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1323호

서울미술나눔 - 자선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는 <서울미술나눔-여명학교후원전>을 12월 16일부터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와 (사)에스아트플랫폼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미술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여명학교는 2004년 개교한 대안학교로,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하여 책임 있고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여명학교를 알리고 후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했으며 여명학교 학생들의 공동제작 벽화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의 작가 작품 30여 점을 함께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COVID-19로 인해 오픈식은 생략하였으며 본회 회장과 이희범 총동창회장(오른쪽 두 번째), 여명학교 이흥훈 교장(왼쪽 두 번째), 차동하 부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거리두기로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관심을 주신 모든 회원 분들과 후원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총동창회캘린더 수록작가

본회는 지난 9월 23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로 부터 2021년도 총동창회캘린더에 수록될 작품에 대한 선정을 요청 받아 권회장을 비롯해 모교학장, 서울대미술관장, 갤러리스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동문작가 13명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제작된 탁상용 캘린더는 서울대동문들에게 배포중이며 작가들에게는 소정의 작품이미지 사용료가 지급된다.



1월.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2월. 이오욱-실딕(癖宅)1



3월. 지완신- 짐복의 소리



4월. 최연빈- 불



5월. 이만나- 불 순



6월. 윤순-Variation of Space series



7월. 김성국- The Trees 19



8월. 윤종구- Blueflower09-02



9월. 오광환-여기에 있는 것과 저기에 있는 것



10월. 김수정-노이프라인즈 09_11_1_S8



11월. 정국성-202010



12월. 신미연- Translation White Porcelain Series



표지. 조인호-고운산군도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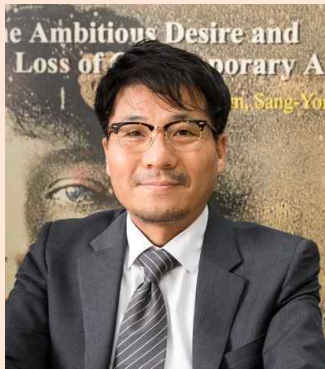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행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발행인: 권영걸 ●편집인: 이순영 ●편집장: 한현정 ●편집: 장주연 최현주

특별기고
Art on the Line’ 전의 부름

다시 흐르는 예술의 터가 되자!
심상용(미술사학 박사/서울대학교)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이 <Art on the line>의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약 400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가하고, 작가별로 3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니,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듯싶다. 전시 관람은 모바일이나 PC 등 디지털 단말기를 통한 ‘on-line’ 접속으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전시는 ‘www.snuart.or.kr’ 로 표기되는 디지털 장소에서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이미지 형태의 작품들의 나열로 구성된다.

작품들은 각 작가의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ㄱ’을 클릭하면, 처음으로 1952년생 강경구(73 회화)의 대작(259 x 388 cm) <흐르지 않는 강>과 마주하게 된다. 관람 동선은 이어 ‘ㄴ’과 ‘ㄷ’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낯익은 이름들, 기억들이 스쳐지나간다. 이 짧지 않은 관람의 마지막은 1947년 출생해 66년 응용미술과에 입학한 황현숙 동문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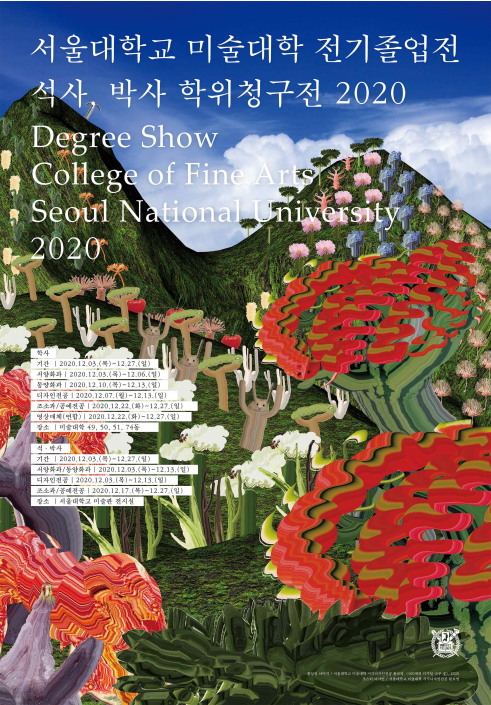
가 출품한 세 점 중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이 긴 여정의 종착지이기도 한 작품은 Pinching&coiling 기법으로 만든 작품 <옹달샘>(28x25x16cm, 2016)이다. 우연일까. 전시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의 주제가 이 전시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하는 듯하다. 아마도 이 여정은 <흐르지 않는 강>에서 시작해 먼 길을 걸어 <옹달샘>에 이르는 그것이라는 듯 말이다. 흐르지 않는 강, 앞뒤가 꼭 막혀 고인 웅덩이, 명치를 누르는 듯한 둔중한 체증, 어떻게든 그것을 뚫어낼 때에야 강은 비로소 다시 흐를 것이다. 그것이 강경구의 <흐르지 않는 강>의 시대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서사의 결말은 부드럽고 온화한 빛이 감도는, 황현숙의 소담한 그릇 <옹달샘>이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채 이웃한 세 개의 크고 작은 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정한 샘물을 담기에 적절해 보인다.

전 인류가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마주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기에, 역사와 기억을 다루는 이 전시의 의미는 더욱 새롭다. 디지털 네트워크 체계와 언택트(untact)화 된 일상이 턱밑에 와 있고, 문화와 예술조차 나날이 성능이 진화하는 인공지능으로 매개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생태계 위기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과 예술창작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도전을 품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존재론에는 이 절박한 시대의 요청에 가장 먼저 답하는, 이 민족 공동체의 부름이 내포되어 있다. 최초의 주춧돌이 놓여 졌던 1946년부터 자명했던 그 부름은 흐르지 않는 강 같은 동시대의 예술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시대의 어두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옹달샘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이 전시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역사와 기억이 새겨져 있다. 공화국과 고락을 함께 해온지 어언 74년 세월이니, 왜 부침이 없었겠으며 공과(功過)인들 없었겠는가. 하지만, 이 위기의 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영감과 재능의 요소를 흐릿하게 하는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의 터전으로, 지각과 상상력의 비옥한 경작지로, 그래서 세계미술을 이끄는 예술의 미래 인재들의 산실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 유구한 역사로부터 들려오는 호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전시는 동문 모두가 고마워해야 할 수고의 대가로 어렵게 성사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또한 마땅할 것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동문 선, 후학 분들께 알량한 마음이나마 전하고자 한다.

모교소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전기졸업전 석사, 박사 학위청구전 2020



<석사, 박사>

동양화과, 서양화과, 디자인전공

2020. 12. 3. (목) ~ 12. 13. (일)

조소과, 공예전공

2020. 12. 17. (목) ~ 12. 27. (일)

- 장소 :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실

- 운영 : 주중, 주말 10:00-18:00/월요일 휴관

* 코로나-19로 오프닝 없이 진행 및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 인원 제한

<학사>

서양화과

2020. 12. 3. (목) ~ 12. 6. (일)

디자인전공

2020. 12. 7. (월) ~ 12. 13. (일)

동양화과

2020. 12. 10. (목) ~ 12. 13. (일)

조소과, 공예전공, 영상매체(연합)

2020. 12. 22. (화) ~ 12. 27. (일)

- 장소: 미술대학(49, 50, 51, 74동)

- 운영: 주중, 주말 10:00-18:00

* 코로나-19로 오프닝 없이 진행 및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관람 인원

제한

2021학년도 모교 신입생 수시모집 실시



지난 10월 19,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1학년도 미술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통합실기평가가 실시 되었다. 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심환자 선별 문진표 수집과 고사장 입실 전 개별포장된 KF-94/N95 마스크 신품 착용 의무화, 순차적 입실 등으로 방역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대입 실기를 치른 적 있지만 올해는 대관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김성규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평소보다 공간을 넓게 확보했다"며 "지자체의 방역 점검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미술대학은 또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시행했다.

서울대소식

웹어워드코리아 2020 교육부문 통합대상 수상



서울대학교는 본교 대표홈페이지(사진)가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상인 ‘웹어워드코리아 2020’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 전면 개편한 대표홈페이지(국문 www.snu.ac.kr·영문 en.snu.ac.kr)는 서울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메인 영상과 편의성을 높인 일관된 레이아웃,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트렌드를 제시한 좌측 내비게이션 바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문은 대학·사이버대학·학생/유아교육·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통합대상은 이 중 최고상이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온라인 홈커밍데이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11월 2일 제41회 홈커밍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70년대 총동창회 홈커밍데이가 시작한 이래 오프라인 모임을 중지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두 번째이다. 행사는 서울대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사전 제작한 영상을 방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찍은 영상편지로 의미를 더하고, 아낌없이 협찬금과 협찬품을 보내와 예년과 다름없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선물할 수 있었다. 이승훈(건축70-74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회장) 상임부회장이 500만원, 이준용(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고문이 350만원을 기부하는 등 동문 2,200여 명이 지원한 협찬금과 협찬품 액수는 총 2억9,000여 만원. 오세정(물리71-75) 모교 총장도 그릇 세트 120개를 지원했다. 이희범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록 유례가 없었지만 오늘 행사는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 덕분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책 감별사’ 모여 국내 최강 서평지 만든다



‘서울리뷰오브북스(SRB)’가 이달말 창간된다. 홍성욱 서울대 교수 등 13명 참여하고 제작비는 펀딩 2시간만에 목표를 채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의 ‘보고 말하는’ 시대에 ‘읽고 쓰는’ 서평의 목적은 무엇일까에서 시작한 이번 제작은 책을 내는 작업이 가치 있다면 서평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지적인 대화’의 계기를 SRB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SRB가 지적인 대화의 큰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했다. SRB는 기존 학계의 ‘주례사 서평’을 뛰어넘어 책을 읽고, 얘기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책의 진정한 의미와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가독성과 글 읽는 재미를 놓치면 존망이 위태롭다고 본다. 홍 교수는 “NRB나 ‘런던리뷰오브북스’도 어려운 과정을 겪다 사회의 지적 공동체와 같이 성장했어요. 우리도 ‘본격’ 서평지를 통해 세상과 사물과 인간을 한 겹 더 깊게 이해하고 즐기는 문화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뜻”이라고 했다. SRB 제작은 서울대 지원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후원자를 모아 이뤄졌다. 개시 2시간 만에 목표 후원금 300만 원이 채워졌고 이날 현재 약 3000만 원이 모였다.

총동창회 2021년 행사 캘린더

▶ 2월 ◀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2월 18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수요특강 2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3월 ▶ 동산대회 3월 6일(토)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 주변 조찬포럼 3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수요특강 3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3월 26일(금) 오후 4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삼성동) *만찬 없음	▶ 4월 ▶ 조찬포럼 4월 8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4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국토문화기행 4월 29일(목) 임진강의 역사 지리 동산대회 4월 하순 (장소 미정) ▶ 5월 ▶ 모교 교수 초청 시은 골프대회 5월 8일(토) (장소 미정) 조찬포럼 5월 13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5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6월 ▶ 조찬포럼 6월 10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6월 23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골프대회 6월 중 (장소 미정) ▶ 7월 ▶ 바둑대회 7월 4일(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체육관 조찬포럼 7월 8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 8월 ▶ 수요특강 8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동산대회 8월 하순 (장소 미정) ▶ 9월 ▶ 조찬포럼 9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9월 29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10월 ▶ 조찬포럼 10월 14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홈커밍데이 행사 10월 17일(일) 오전 9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일대 수요특강 10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국토문화기행 10월 28일(목) 이효석 문학 기행 ▶ 11월 ▶ 조찬포럼 11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11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서울대-동경대 동창회 친선교류회 2021년 11월~2022년 11월 중 도쿄대 혼고 캠퍼스 ▶ 12월 ▶ 조찬포럼 12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 수요특강 12월 22일(수) 낮 12시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	--	--	---

제2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 추천 안내

1. 후보 추천 대상

-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 또는 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
- 해외에 거주하며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 또는 단체

2. 후보 추천

- 추천방법: 추천 사유에 맞춰 후보의 공적 등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추천기한: 2021년 1월 31일(일)까지

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1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1년 3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2021년 신년인사회 겸 조찬포럼

- 일시: 2021년 2월 18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서울시청 앞)
- 행사내용: 조찬 및 신년 덕담, 유공 동문 표창, 특강 등
- 강연자 및 주제: 정부 관계자, '2021년 국정 방향' 특강(변경될 수 있음)
- 참석인원: 220명(선착순)

관악경제인회(가칭) 회원 모집

- 대상: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중강소기업인 벤처창업인 또는 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동문, 경제 분야 학계·언론계 동문
- 목적: 친목 도모, 정보공유의 장 마련 및 스타트업 산후배 네트워크 연결 등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1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신청 가능. 문의 : 02-702-2233

4 공지사항

회비납부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조금(2020.11.1-30)

- 광고후원금(라이프해커스)50,000원
- 최아영(67응미)30,000원

회비납부자(2020.11.1-30)-가나다순

- 연 회 비
- | | | | |
|-----|------------|------------|------------|
| 회 원 | ●김성연(69응미) | ●김희자(66회화) | ●박근자(51회화) |
| | ●박충흠(65조소) | ●서도식(74응미) | ●안수경(85공예) |
| | ●염은경(74조소) | ●이광수(88동양) | ●이권민(08동양) |
| | ●전미정(82조소) | ●정규리(90동양) | ●정현도(71조소) |

동창회 SNS 가입안내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SNS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동문들에게 널리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ID예 : 홍길동(99동양)

네이버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https://band.us/band/76254576>

인스타그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instagram.com/snuartassociation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facebook.com/groups/500249366673119/

네이버 카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cafe.naver.com/snuartassociation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전화 02-872-8065 메일 snuarta@naver.com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제작중)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 02-872-8065
입금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2020 제44회 한울회 온라인전

▶유튜브 검색어 : 한울회 온라인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여성동문작가 131인의 모임인 한울회(회장 정옥란)는 올해 거리두기 동참으로 정기전을 생략하고 온라인 전시를 개최한다. 온라인 전시를 둘러보시고 현재 신입회원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여성동문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된다.

▶문의 : ela216@hanmail.net>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약 3000명에게 메일과 SNS를 통해 전달하고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행사·인사·수상·결혼·조사 등 동정을 매달 25일까지 메일(snuarta@naver.com)로 보내주시면 당월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수묵추상 선구자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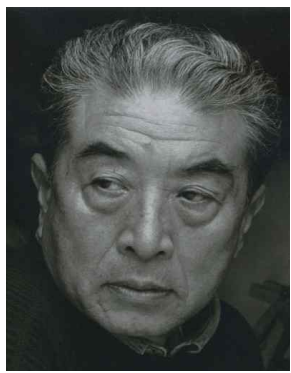
서세옥(작고/46회화)



한국화가 산정 서세옥 모교 명예교수가 숙환으로 지난 11월 29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1세. 대한민국예술원은 3일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서세옥 회원께서 2020년 11월 29일 숙환으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유족은 "조문객의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가족장으로 장례 후 별세 사실을 알려드리게 됨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화의 현대화 작업을 주도한 서동문은 서예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작업으로 평생 화단 변혁의 선두에 서 왔다. 그는 1959년 묵림회(墨林會)를 발족해 현대적 한국화의 바람을 이끌었으며 파격적인 수묵 추상으로 독창적 화풍을 개척했다. 서동문은 한국미술의 국제화 흐름에 앞장서 상파울루비엔날레, 카뉴국제회화제 등에서 활약했다. 1993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6년 제4회 이동훈미술상, 2007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0년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인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됐고, 2009년 개관한 성북구립미술관 명예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지난 2014년에는 핵심작을 추려 총 10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국 추상 조각 개척자 별세

최만린(작고/54조소)



한국 추상 조각의 개척자 최만린 모교 명예교수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최동문은 한국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조각가로 모교 교수 및 학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고 2001년 모교 명예교수직을 수여 받았다. 1958년 한국전쟁의 상흔을 표현한 '이브' 연작을 통해 명성을 얻었으며, 1960년대부터 '천' '지' '현' 시리즈와 '일월' 시리즈 등 서예의 필법과 동양 철학이 모티프가 된 작품을 비롯해 생명의 보편적 의미와 근원의 형태를 탐구하는 '태' '맥' '0' 시리즈 등 최근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최동문은 삼성미술관(2001), 국립현대미술관(2014)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을 비롯해 파리비엔날레(1967), 상파울로비엔날레(1960) 등 주요 단체전에 초대됐으며, 2007년 대한민국미술인대상, 2012년 대한민국예술원상, 2014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최동문의 아틀리에 겸 자택을 매입해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조성했다. 최동문은 작품 126점을 기증했으며 미술관에서는 내년 1월23일까지 개관기념전시가 열린다.

너와 나의 풍경 2020

김승희(65응미)



두가헌 갤러리에서 금속공예가 김승희 동문의 개인전 <너와 나의 풍경 2020>이 지난 달 개최되었다. 한국 현대공예 1세대인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현대 금속공예에 옷칠 채색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한국 공예의 전통을 잇고 동시대적 조형 언어로 새롭게 실험해 온 작가이며, 색채에 대한 갈망으로 옷칠에 안료를 섞어 금속판에 색을 입힌다. 금속판의 표면에 찻쌀풀과 안료, 생옷을 잘 섞어 삼베에 입려 따듯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두부와 생칠 그리고 안료를 섞는다. 이렇게 마무리된 색색의 금속판을 겹겹이 쌓고, 그 위에 그릇, 병, 달항아리 등 김동문의 초기 공예품을 떠올리는 형태나 기하학적 선을 배치함으로써, 서정적이며 입체적인 풍경이 되는 독창적인 조형물을 완성했다. 전시에서는 "금속으로 그린다"라는 호평을 받은 그의 신작들이 전시됐다.

2020 김세중조각상

배형경(74조소)



김세중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조)는 제34회 김세중조각상 본상 수상자로 배형경 동문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고된 노동을 요하는 전통 소조 방식을 고수하는 얼마 남지 않은 조각가"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배형경의 작품에는 탈인간화된 삶을 직면한 현대인의 고뇌가 진정성 있게 배어 있다"고 평가했다. 배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송암스페이스센터 등이 소장하고 있다. 조각 분야 최고 권위의 김세중조각상은 한국 현대조각 제1세대인 김세중(1928-198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올해까지 조각상 74명, 미술저작상 22명을 배출했다. 김세중은 서울대 미대 1회 졸업생으로 서울대교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조각상 심사위원은 원인중(이화여대), 이용덕(서울대), 윤영석(가천대), 이수홍(홍익대), 심상용(서울대)이 맡았다. 한국미술 저작·출판상은 이어령(문학평론가), 이기웅(영화당대표), 최열(미술평론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져 내년 2021년도 시상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미국건축가어워즈 수상

박진희(91디자인)



건축가이자 콜럼비아대 교수인 박진희 동문이 미국 건축가 어워드(The American Architecture Awards 2020)의 개인주택(Private homes) 부문에서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네 가구가 한 집안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한 지붕 네 가구'를 위해 지어졌다. 새롭고 오래된 것이 공존하고, 아늑하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마을에 자리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아름다운 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건축물의 3개면은 남향으로 햇빛과 전망이 균형을 이루도록 맞춤 설계했으며, 4가구를 위한 전략적인 4개 단위로 나눠 내부 계단과 외부 계단이 겹치며 각 가구에도 여러 계단이 있어 건물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박동문은 하버드 건축 대학원 석사 졸업후 에스에스디 대표, 콜럼비아 대학교 겸임교수, 뉴욕시립대학 초빙석좌교수, 시카고 공과대학 모겐스텐체어 교수, 서울시 공공건축가, 뉴욕건축가협회상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갑 없는 시대’ 발표

조수용(93디자인)



지난 11월 18일 조수용 동문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 개발자 행사인 '이프(if) 카카오 2020'에 앞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에 적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품 정기배송을 신청하는 '상품구독' 서비스는 곧바로 적용되었으며, 기업의 홍보와 고객 관리가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도 올해 안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구독하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을 선보이게 된다.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것은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이다.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는 신분증·자격증·증명서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과 카카오페이가 결합하면 지갑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카카오톡이 실물 지갑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동문은 강조했다.

미디어 파사드의 혁신적 선두주자

하준수(93디자인)



하준수 동문(국민대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융합미디어디자인연구소장)이 미디어 파사드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고층 건물 외벽에 LED조명으로 아름다운 영상이 연출되는 등 시각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도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동문은 모교에서 공업,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미국의 칼아트에서 Film & Video를 전공했다. 작품 <뼈와 꽃>은 5.18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며, 최근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원으로, To Eternity>를 전시했다. 5.18기념재단 사진 아카이브의 4,000여점을 작품에 사용한 작업으로 5월의 광주 항쟁의 현장을 소환했다. 하동문은 이 분야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옛것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다

공상구(97동양)



공상구 동문(마이아트옥션 대표)은 서울대에서 동양화, 고려대 대학원에서 도자사를 전공하고 1998년 우리나라 고미술계 대표 화랑인 공화랑을 시작으로 고미술과 동양화 전문 감정 커리어를 개발해 왔다. 현재는 마이아트옥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동양화 시장이 정당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 환수 문화재 경매, 전시, 명사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하며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낙찰된 주요 작품으로는 성종대왕비 공혜왕후의 어보인 <취의 신숙공혜왕후지인>, 고종·명성황후의 가례에서 사용된 <백자청화 병인가례사명수복문호> 등이 있다. 그는 현대미술에 비해 고미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큰 이유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을 들었으며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옥션으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공 동문은 마이아트옥션이 판로가 되어 인사동을 다시 살리고 '고미술 업계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부터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열어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작가상 전시

김민애(00조소)



조각과 설치를 통해 일상과 예술의 틈을 비트는 작품들을 발표해 온 김민애 동문이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4인에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학적,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역량 있는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해마다 4명의 후원작가를 선정하여 신작 제작 지원과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올해의 작가상 2020'에는 김민애, 이슬기, 정윤석, 정희승 4인이 뽑혔다. 최종 작가를 가리는 공개 경쟁전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막한다. (12.4~2021.4.4.) 김동문은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소재로 삼아 작품과 전시의 관습적인 조건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작을 선보인다. 공간과 구조물, 작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은 조각이 주어진 환경이나 맥락과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가라는 작가의 오랜 질문에서 발원하여, 조각이,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성찰로 연결된다. '올해의 작가상 2020' 최종 수상자는 전시 기간 중 2차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그룹 에브리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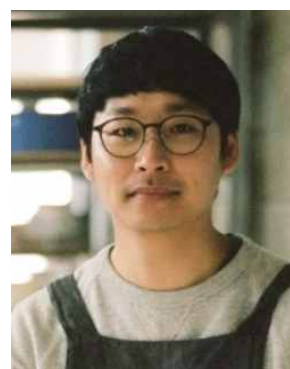
허윤실(02디자인)



미디어아트그룹 에브리웨어가 내년 10월 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어린이갤러리에서 'MAZAR'전을 선보인다. 두 사람은 부부작가로 남편인 방현우 동문은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했고, 허윤실 동문은 국어국문학과 디자인학부를 복수전공했다. 이후 방동문은 유체역학을 활용한 에이지 진단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서울대 조교수가 되었고, 허동문은 LG전자 R&D센터에서 일하다 미국 UCLA에서 디자인-미디어아트 석사, 서울대 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에브리웨어는 국립현대미술관, 일본 국립도쿄미술관,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초청받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방동문은 2014년도에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에브리웨어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작업들은 홈페이지(<http://everyware.kr>)에 공개하고 있으며, 강의 등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있다. 에브리웨어는 'MAZAR(마자르)'전을 통해 더 흥미로운 '미술관 경험'을 마음에 남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예율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 수상 기념

김덕호(03디자인)



예율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 김덕호 동문과 올해의 장인 갓길 정춘모(국가무형문화재)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0 예율 프로젝트 전시 결·겹'이 열린다. 김동문은 조선 백자의 미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도자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연리' 기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흐르다 Flow', '흔적Vestige' 시리즈를 완성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박물관 및 아트 페어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한국 양구백자박물관, 영국 Victoria & Albert 뮤지엄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무늬들은 백자의 간결한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작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김동문은 조선백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양구에 터를 잡고, 백자의 미감과 기능성의 조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열리며 이번 전시는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문의 : 02-753-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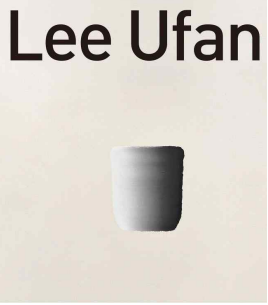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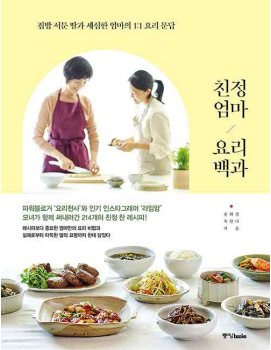
퀸즈크로싱 몰 공공 미술 작가 선정

권재나(0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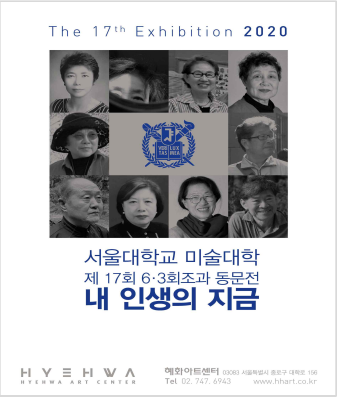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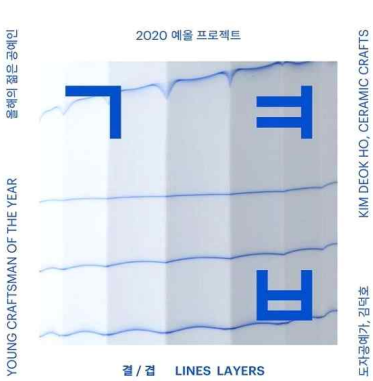


한인 조각가 권재나 동문이 올 연말 퀸즈크로싱 몰의 공공 미술 작가로 선정됐다. 크로싱 아트 갤러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로 13년째 퀸즈 플러스 다운타운지역에서 야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F&T 그룹은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플러스 크로싱몰에 권재나 작가가 새롭게 제작하는 추상 조각 작품이 선보인다. 'Hearts as One'라는 제목의 이번 조각 작품은 오래 거주하며 느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전시된다. 권 동문은 '하트'(Heart)라는 글로벌한 모티브를 차용해 표현했으며 빨강과 파랑 두 가지 보색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각기 다른 문화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퀸즈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담아내려는 의도를 담았다. 또한 평소 축각을 강조한 추상 조각 작품을 제작해 왔는데, 이번 작품도 그 연장선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제작됐다.

신간

 이우환, 무한의 예술 이우환(56회화), 김복기 외 5 지음 / 에이엠아트 한국이 낳은 아티스트 이우환. 그는 동양과 서양을 분주하게 떠도는 세계인이다. 그의 원숙한 장년기의 창작은 폭과 깊이, 질과 양에서 가히 절정으로 치달고 있다. 구겐하임미술관, 베르사유궁전, 퐁피두메츠센터, 디아비콘 등 세계미술의 심장부에서 이우환은 매머드 전시 프로젝트를 연이어 실현해냈다. 이 책은 이우환이 걸어온 이 숨 가쁜 창작의 행보를 집약한 책이다.	 일하는 사람의 생각 오영식(84공예) 외1 지음 / 세미콜론 발행 오영식 동문과 박웅현은 광고와 디자인이라는 현업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선배 창작자로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현장을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았다. 오동문은 현대카드 디자인의 체계와 근간을 만들고 SK텔레콤, JTBC, 롯데카드 '로카' 등 국내 유수 기업의 브랜드에게 디자인 생명을 심어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문가로서 눈부신 결과물들을 만들어왔다.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이연식(90서양) 번역 / 노아치니움/재승출판발행 이 책은 사라지거나 때로 다시 발견된 미술품이 겪은 사연을 살펴본다. 비잔틴의 모자이크는 400년이 지난 1934년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피카소, 말레비치의 사라진 작품은 최신 기술을 통해 다른 작품 밑에서 발견되었다. 작가는 미술 범죄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술품의 존재 방식을 다채롭게 살피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번 책은 입체적인 관심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드가 이연식(90서양) / arte 발행 동서양을 넘나들며 여러 예술가와 작품을 소개해 온 이연식 동문이 이번에는 클래식 클라우드의 스물네 번째 책 『드가』를 통해 드가의 삶과 작품을 이야기한다. 이동문은 드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살핌으로써 드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리산 가는 길 임채욱(95동양) / 아트제 발행 산을 찍는 작가로 잘 알려진 임채욱 동문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찍은 지리산 사진을 '지리산 종주길',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실상길', '지리산 예술길'로 나누어 책에 실었다. 임동문은 2020년 10월 18일 책 출간과 동시에 남원 실상사 선재집에서 <지리산 가는 길> 개인전을 연다. 『지리산 가는 길』 책 속에 담긴 작품 중 17점을 선정하여 한지에 프린트 한 작품들을 지리산 실상사와 익양작은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친정엄마 요리백과 옥한나(08조소) 외1 지음 / 중앙books 발행 옥한나 동문(라임맘)과 파워블로거 '요리천사' 모녀가 함께 써내려간 214개의 친정 찬 레시피를 담은 책이다. 레시피보다 중요한 엄마만의 요리 비법과 실패로부터 터득한 딸의 요령까지 한데 담았다. 옥동문은 엄마의 본래 레시피를 어린 아이들이 먹기에도 무방한 메뉴로 변형해서 요긴한 콘텐츠로 꾸렸다. 이 책 한 권이면 한식을 기반으로 한 우리 밥상의 거의 모든 메뉴를 해결할 수 있다.

전시

 내 인생의 지금 제17회 6·3회조과 온라인 동문전 - 63학번 회화과, 조소과 동문전 ▶유튜브 검색어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조과 63학번 동문전 ▶참여작가 : 김소선 김철호 김효숙 박윤희 배수자 변희준 안재기 정심미 조용숙 최정용	 결 류은선(16동양)·이승은(14동양)·이예지(13동양)·청이인(석사20동양) ▶전시기간 : 2020. 11. 18 - 12. 02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사 900동 B2 ▶관람시간 : 오전9시~오후5시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석사 재학생들의 단체 전시이다.
 2020 올해의 작가상 허진(81회화) 수상기념전 ▶전시기간 : 2020. 12. 23 - 12. 28 ▶전시장소 : 동덕아트갤러리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5시 광화문아트포럼 선정 수상기념전시이다.	 겹 김덕호(03디자인) ▶전시기간 : 2020. 12. 01 - 2021. 1. 15 ▶전시장소 : 예울 북촌가(02-735-5878) ▶관람시간 : 오전11시~오후5시 (일월공휴일 휴무) 예울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 수상 기념 전시이다.

개인전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	전시장소
국보은(79응미)	Hide and Seek II	12. 08 ~ 12. 13	사이아트 스페이스
권재나(05서양)	‘Hearts as One’	12.04 ~ 21.01.31	Queens Crossing Mall
권현빈(10조소)	Ongoing Track / 미래와 모양	11. 24 ~ 12. 12	모노하 성수
김남표(91서양)	Gumgil : Tale of JEJU by Nampyo, Kim	11. 19 ~ 12. 18	호리아트스페이스
김대영(79회화)	존재의 가벼움을 넘어서	11. 27 ~ 12. 06	갤러리4F
김봉경(02동양)	홍곡(鴻鵠)	12. 23 ~ 12. 29	갤러리 도스
김신혜(97동양)	SPECTRUM	12. 03 ~ 12. 19	오 스퀘어 갤러리
김예찬(14동양)	병풍 속 로댕미술관	12. 19 ~ 12. 28	프로젝트룸 신포
김호준(92서양)	김호준 초대전	11. 27 ~ 12. 10	갤러리 내일
노상균(77회화)	Daydreamer's Tears	12.03 ~ 21.02.27	갤러리 시몬
박관욱(69회화)	박관욱 2006/2020 "Verum Ipsum Factum"	12.11 ~ 21.01.09	웅갤러리
박성진(83서양)	돌담이 있는 풍경	11. 21 ~ 12. 04	아트 인 명도암 갤러리
박재만(83동양)	별 그리고 달의 추억	12. 16 ~ 12. 22	아리수갤러리
배창숙(74응미)	지나간다	12. 19 ~ 12. 31	심헌갤러리
서용선(75회화)	만첩산중서용선회화	11.25 ~ 21.02.21	여주미술관
송윤주(94동양)	방화수류(訪花隨柳): 꽃을 찾고 버들을 따라 노닌다.	11.02 ~ 21.01.3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심현희(76회화)	심현희 개인전	12. 08 ~ 12. 20	세종갤러리
안광휘(10서양)	Show Down	12. 10 ~ 12. 20	디스위켄드룸
안성규(86서양)	BORDER	11. 18 ~ 11. 24	갤러리 M
윤이랑(05공예)	Bouncing Boundary	12. 16 ~ 12. 28	갤러리밈
윤종구(76회화)	숲을 넘어 그림이 되다	12. 16 ~ 12. 22	갤러리41
이문주(91서양)	댄스 Dance	12. 02 ~ 12. 12	갤러리 41
이상길(83조소)	Contact together	11. 11 ~ 12. 31	바우지움 조각미술관
이승현(01공예)	Patchworked Texture	11. 17 ~ 11. 27	갤러리 완물
이종석(92동양)	Phenomenon	11. 19 ~ 11. 28	갤러리 진선
이종환(14동양)	평면, 입체 질투	12. 05 ~ 12. 14	프로젝트룸 신포
이혜민(88조소)	Reflections	11. 25 ~ 12. 12	갤러리빙
임재형(08서양)	허물 Tracing on Emptiness	12. 16 ~ 12. 23	온수공간
임채욱(95동양)	지리산 가는 길 & 말러	11. 26 ~ 12. 31	을지로임 Art Space
정재호(90동양)	창과 더미	12. 02 ~ 12. 27	상업화랑
정태후(11서양)	와일드 카드	11. 23 ~ 12. 02	갤러리 777
채현교(90서양)	채현교 개인전	11. 23 ~ 12. 27	한경갤러리
최혜경(02서양)	이온 러브	12.17 ~ 21.01.06	프로젝트 스페이스영등포
허승희(03동양)	J에게	11. 25 ~ 12. 04	갤러리 한옥
홍광현(86디자인)	'想像'	12. 16 ~ 12. 22	갤러리 이즈
황혜선(88조소)	함께라면 함께니까	12. 08 ~ 12. 27	갤러리 나우



동문작품집 <서울대 미술인> 배부

- 장소: 본회 선릉오피스
강남구 테헤란로311, 아남타워1323
- 시간: 화~목 오전 10시-오후 5시

직접수령이 어려우실 경우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착불배송을 원하시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010-9469-8065
- ▶기간: 12월 26일까지